

디지털 시대 맞는 '독서교육 정책' 개발 힘쓰자

디지털·AI 등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현장도 변화된 독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학령기의 학생들에게 어휘를 풍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어휘력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은 이 시기에 체득해 평생학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8·完) 독서교육으로 '미래교육' 그린다



◇문해력 향상 방안 '독서교육' 확대
최근 온라인상에 '금일' 과제를 제출할 '금요일'로 이해한 일화가 게시되면서 문해력 논란이 뜨거웠다. 또 '사흘'을 4일로 알고 있거나, '고지식하다'를 높은 지식이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같은 문해력 저하 현상이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독서교육을 탄탄하게 해야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매일신문이 총 8회에 걸쳐 보도한 '다시 책으로' 독서교육이 미래교육을 만든다' 기획 취재를 통해 광주, 전남, 서울, 프랑스, 대구 등 국내외 독서교육 정책을 들여다본 결과,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끌어올릴 방안으로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확대 ▲학교 도서관 활성화 등이 꼽혔다.

먼저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는 다양한 실력을 키우겠다는 교육 기본 방향에 따라 초·중·고 학교급별 독서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추진 과제로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내실화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학생 중심 독서·토론·논술 프로그램 운영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독서문화 조성 등을 설정했다.

특히 지난 4·6월 9주간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 능력 향상, 대입 논술전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제1기 독서·토론·논술 교육과정은 큰 호응을 얻었다.

1기 교육과정에 참여한 김시훈(장덕고·1학년) 학생은 "토론과 논술에서 논리적 사고와 흐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며 "평소에도 이러한 사고법을 적용해 어떠한 현상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논리적 논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된

교육과정 연계 독서·학교 도서관 활성화 중요 에듀테크·AI 등 선진 기술 결합...다양화 필요 도서관 전담 인력 '사서교사 부족'은 해결과제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논술 시간을 더 확보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 '1교 1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 우수 학교 사례가 가려져 소개되며, 우수 학교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미래교육 대전환 '책으로 하나되다'
전남도교육청은 '생각을 글로 피우는' 전남독서인문교육을 통해 '독서로 미래교육 대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교육 대전환을 선보인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독서문화 한마당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브랜드인 '전남독서인문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완도교육지원청이 지난 5월28~31일 3박4일 일정으로 완도에서 여수항까지 '완도 선상 독서인문학교'를 추진해 독서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완도 선상 독서인문학교는 완도와 여수를 오가는 동안 이순신 장군의 의(義)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난중일기'를 주제로 토론과 생각 공유하기, 책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교육계획에 독서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 지원, 섬 지역 독서인문 문화 격차 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2024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기본 계획에 따라 '서울 북 웨이브(Book Wave)' 캠페인으로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 북 웨이브 캠페인은 온 가족이 함께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도서관, 마을을 책으로

있는 서울교육공동체의 독서 물결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책 읽는 나'부터 시작해 '함께 읽는 가족', '독서공동체, 서울'로 확장되는 독서 물결이 학교와 도서관, 마을로 이어져 서울 전체에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가 책 읽는 문화 조성에 동참해 시민 독서 생활화에 대한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속 독서·인문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독서·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을 지원하고, 학교급별 독서교육 자료 및 심화자료 개발·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佛파리 '독서습관 환경 조성' 최우선
세계적 교육 선진국 프랑스 파리에서 살펴본 독서교육 정책은 국가적 대업으로 선택할 만큼 학교 안팎에서 매일 독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의 특징은 교사의 자율적 권한이 높아 다양한 책이 수업에 활용된다. 학교 수업에서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 논술까지 함으로써 다양한 표현력, 문해력 등을 익히고 독서 습관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15분의 독서' 정책은 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을 마련, 매일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학교와 지역 도서관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소르본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고도화되면서 종이 책은 안 읽더라도 휴대전화로 전자 책을 읽고, 기

사를 본다"며 "시대적 변화에 맞춰 사람들이 다양하게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가 독서교육을 최우선 하고 있는 배경에는 학령기에 책을 읽고 쌓은 지식을 전제로 사고력을 평가하는 중등과정 졸업시험 '바칼로레아'가 있다.

프랑스 교육부가 운영하는 바칼로레아(FB)에 필요한 논술적 사고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민간 비영리 교육 기관이 개발한 교육과정인 국제 바칼로레아(IB)는 국내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 바칼로레아와 국제 바칼로레아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프랑스 바칼로레아가 일종의 자격고사라면 국제 바칼로레아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전 과정 논술 및 서술형 평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평가 등을 담은 교육과정이다.

현재 대구·제주·충남·부산시교육청 등이 추진하고 있다.

두 종류의 바칼로레아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논술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은 비슷하다.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IB 도입뿐만 아니라 15여년 전부터 타 시·도교육청보다 독서교육을 최우선 정책으로 다루고 있어 올해 '수업을 품은 책 읽기'(수품책)가 더욱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

수품책의 핵심은 '교과 수업 속에서 1책 읽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은 각 지역교육청은 물론, 지자체, 지역 도서관, 마을도 힘을 보태야 가능하다. 사진은 서울 광장 '서울아와도서관' 모습.

기'를 기반으로 토론, 글쓰기 등 독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교과)과 관련 있는 책을 선정하고 교과별 성취 수준과 학습 요소를 고려해 10분 책 읽기를 진행한다.

대구지역 모든 학교에서 수품책에 참여할 정도로 독서교육에 열의가 높아 우수 교육청으로 입소문이 났다.

특히 시대적 변화에 맞는 '독서용 온라인 콘텐츠 지원'을 활성화해 책 읽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미래 역량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소통·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렇듯 미래교육에서는 독서량이 풍부한 학생들의 어휘력과 상상력을 토대로 다양한 방법의 아이디어가 동반되어야 한다. 에듀테크, AI 등 선진 기술을 결합한 미래교육 실현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과정에서 독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전담 인력인 사서교사에 대한 열악한 배치는 과제로 남았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추진하는 독서교육 정책이 교육과정의 최우선 순위로 다뤄져 학생 기초 학력 향상의 발판이 되고, 독서 습관 확산으로 이어져 디지털 시대 문해력·사고력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될 기대해 본다. /김다이지

*이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글로벌 북클럽회에서 선보인 미래도서관 모습

알고당시다

개인형이동장치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p>01 무면허 운전</p> <p>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p> <p>범칙금 10만원</p>	<p>02 승차정원 초과</p> <p>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p> <p>범칙금 4만원</p>	<p>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p> <p>범칙금 2만원</p>	<p>04 음주운전</p> <p>운전면허 정지·취소</p> <p>범칙금 10만원</p>	<p>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과태료 10만원</p>
---	--	--	---	---

KoROAD 도로교통공단